

166.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33) 안료 무지 착색에 의한 마 재킷

□ 안료 무지 착색에 의한 마 재킷

해설)

- 리스팅(listing)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천의 양 끝단 부분과 중앙 부분과에 색차가 생긴 상태를 말함.
- 재킷을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했는데, 전체가 반점상으로 탈색이 발생되었음. 마섬유 소재를 염색하는 경우는 통상 반응염료, 직접염료, 배트염료 등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마섬유 직물을 염색할 경우, 리스팅이라고 하는 염색 얼룩이 발생되기 쉽고, 염착성이 나쁘기 때문에 농색은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본 제품의 경우, 특히 좌측 깃부분의 어깨부분에서 심한 탈색이 발생되었는데,

염착성이 나쁜 소재라 해도 반응염료 등의 염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탈색이 드라이클리닝 세정으로는 발생되기 어려운 현상으로 추정되었음.

- 따라서 드라이클리닝의 영향을 받기 쉬운 안료의 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료가 용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제품은 안료 선염에 의한 무지 착색 제품으로 판단되었음. 염색성이 낮은 소재에 안료를 이용하여 선명한 농색을 균일하게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염색한 제품으로 사료되었음.
- 바인더를 이용한 안료 염색은 퍼클로로에틸렌 등 유지 용해력이 강한 용제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면 드라이클리닝에 의한 안료의 탈색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함. 제품에 부착된 취급 표시를 보면, 드라이클리닝 가능 및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가능으로 되어 있으나 석유계 용제에서는 바인더(접착 수지)가 가수분해되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세정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제품의 취급표시는 물세탁 표시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음.

♠ 자료출처 : 송중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